

조선업계, 카타르서 ‘잭팟’... 잠수함·LNG선 등 수주전 치열

카타르에너지 추가수주 예의주시
폴란드·필리핀 등서 글로벌 경쟁
현대중·한화오션, KDDX 갈등 격화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일 최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방산 1위 한화오션은 한 치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부고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 폴란드 ORKA(오르카) 잠수함 프로젝트, 필리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해군은 노후 잠수함 교체용으로 장거리 3000톤급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기 위한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획득 비용은 1척에 2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수명 주기 비용, 교육 훈련까지 더해 총 600억 달러(한화 약 79조 6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ORKA(오르카) 사업은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폴란드는 22억5000만 유로(한화 약 3조2559억 원) 정도에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모습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전경.

/한화오션

2~3척 도입을 예고 하고 있다. 지난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해 총 11개사가 참여 의사를 전했다. 올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필리핀도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폴란드 ORKA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외 방산기업들과 잇단 협력을 공개했다. HD현대중공업도 발콥사와 해외 수출을 위한 잠수함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잠수함의 통합

전투체계는 LIG넥스원이 맡는다. 이달 HD현대중공업은 LIG넥스원과 ‘수출형 잠수함 독자모델 개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오션은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적극 나서 한화의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폴란드에서 직접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배치(Batch)-II’의 우수한 잠항 능력과 다목적 수직 발사관 등 기술력을 알렸다. 한화오션은 9000억원을 투자해 유럽·북미 등 해외 방산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내 조선 3사는 카타르에너지의 추가 수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카타르에너지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차 프로젝트에서 잭팟을 터트렸다.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이 17척을 계약한 뒤 올해 들어 삼성중공업이 15척, 한화오션이 12척을 수주하며 예상했던 40척보다 많은 44척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 3사 합산 계약금액은 당초 예상했던 12조원보다 높을 전망이다.

여기에 카타르에너지가 LNG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에너지는 2030년까지 LNG 연간생산량을 현재 대비 85% 늘릴 계획이다. 연간 LNG 생산량은 현재 7700만톤에서 2030년 1억

4200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사업을 두고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양측의 갈등은 한화오션이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면서 더욱 격화하고 있다. 두 조선업체의 갈등은 재계 순위 7위인 한화그룹과 9위인 HD현대 간의 싸움으로도 번져가는 모습이다. 여기에도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비슷한 연배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태가 부회장들의 경영 능력을 판가름하는 시험대처럼 여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간담회

“세탁·건조는 기본... AI로 초연결 경험 선사”

날씨 확인 등 편의기능 제공
AI가전 선두기업 위상 공고히

말하고 생각하는 세탁·건조기가 등장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콤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가전 포트폴리오 확장과 삼성전자의 비전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현실화 한다.

삼성전자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간담회를 진행했다. 휴대폰인 갤럭시를 넘어 세탁·건조기까지 인공지능(AI)을 탑재하며 AI 가전 시장 선점하고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고성능 칩과 타이젠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사용 편의성을 위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기본적인 세탁·건조 기능은 물론 생활 편의기능까지 모두 제공한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이젠 세탁기로 전화를 받고 날씨까지 확인하는 시대가 온다”며 “AI 챗봇에 쓰는 고성능 칩으로 스마트싱스와 연결돼 냉장고와 TV, 환관문까지 콘트롤 할 수 있으며 빅스비로 음성제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탁·건조를 위한 지시부터 “오늘



11일 서울 중구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삼성전자 DA사업부 CX팀장 이무형 부사장이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의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제품 /뉴스

의 날씨?”와 같은 일상 명령어도 알아듣고 응답한다.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스크린 에브리웨어’ 전략의 일환으로 세탁기와 냉장고, TV 등 가전끼리 모두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휴대폰 갤럭시와도 잇는다는 구

상이다.

이 부사장은 “AI를 위한 고성능 칩이 타 제품까지 확산하도록 기술 개발 중”이라며 “갤럭시 S24와 연결돼 세탁기에서 갤럭시의 번역기능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LM(거대언어모델)도 개발 중으로 추후 업데이트해 탑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AI 기능 탑재와 연계 가전 활용 외에도 일체형 세탁·건조기로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로써 확실한 세탁과 건조 기능을 갖췄다.

2월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용량 25kg, 건조용량 15kg으로 일체형 제품 중 국내 최대 건조 용량을 자랑한다. 출시 열흘 만에 3000대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큰 용량으로 키크 사이즈이불을 건조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셔츠 17장에 해당하는 분량(3kg)을 99분만에 세탁하고 보송보송하게 말릴 수 있다.

이 부사장은 “3년의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 흥행을 시작으로 올해 비스포크 제트 AI, 비스포크 제트 AI 등 AI 기능이 강화된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AI가전=삼성’이라는 공식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우디 발전소 사업 참여

1500억 규모 기자재 공급 계약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우디 최대 복합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발주처인 셉코3(SEPCO-3)과 사우디아라비아 타이바 1·카심1 복합화력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타이바1 복합화력발전소와 카심1 복합화력발전소에 650MW급 스팀터빈, 발전기를 1기씩 공급한다. 계약금액은 약 1500억원 수준이다.

타이바1·카심1 복합화력발전소는 제다 북부 약 200km와 리야드 북서쪽 약 200km에 각각 위치한다. 두 발전소 모두 1800MW급으로 2027년까지 건설된다. 디벨로퍼(개발사업자)는 아크아

파워(ACWA Power)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SEC)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셉코3은 EPC(설계·조달·시공)로 사업에 참여한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 BG장은 “국내는 물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과 아시아 등 해외 가스발전 시장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5년간 사우디에서 약 15GW 이상의 복합화력발전소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LG전자, 밀라노서 고효율 공조 솔루션 뽐내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 참가

LG전자가 현지시간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모스트라 콘베노 엑스포(MCE) 2024’에서 다양한 공간에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고효율 공조 솔루션을 선보인다.

MCE는 스마트 빌딩과 주거 공간의 HVAC+R(Heating·Ventilation·Air Conditioning·Refrigeration),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분야를

전문으로 2년에 한번 열리는 국제적 행사다. 올해는 53개국 15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LG전자는 이번 MCE 2024의 ‘주거용 솔루션존’과 ‘상업용 솔루션존’ 두 공간에 각각 부스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유럽 가정용 냉난방 시장을 겨냥한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 ‘듀얼쿨(DUAL COOL)’을 최초로 공개한다.

/김서현 기자